

국회사무총장께 드리는 편지

A Letter to the Secretary -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김인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arki움
 by Kim In-Cheurl

국회의사당의 지붕모양을 바꾸려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돔을 기와지붕으로 하려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 끝에 내려진 결론일 것이라 생각되어 함부로 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몇 년전 모주간의지의 청탁으로 국회의사당의 건축적인 평가를 써본 경험이 새삼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주간지의 편집의도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특집을 구성하면서 의사당의 건축적인 특성도 함께 알아보려는 것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건축의 형식과 내용이 그곳의 상황에 어찌 비추지는지 점검해보는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붕을 바꾸려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건축문화의 해를 준비하는 건축계에 던져진 공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더욱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보도된 기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느낌이 산뜻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몇 년전의 느낌을 되살려 지금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는 것은 그런 의문 때문입니다. 건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정치담당인 출입기자의 안내로 여의도 일번지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 기자가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의사당의 내부가 마치 미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도면으로 설계상의 특징들을 검토해보았던 저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기능적이고 합리적이며 단순한 구성을 갖고 있는 형식이어서 오히려 무미건조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는데 미로라는 표현은 참으로 신기하였습니다. 미로라는 형식은 미노타우루스가 처녀공양을 받던 미노스의 미궁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달동네의 골목길처럼 생활이 만들어낸 끈끈한 길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오늘의 건축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건축가는 애써서 미로와 같은 공간을 만들려고 공을 드리기도 하지요. 기자의 느낌은 미학적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였겠지만 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넓은 광장을 옆으로 돌아 의사당의 정면으로 다가가려는 저를 기자는 말렸습니다. 그곳은 선택된 사람만 출입하는 곳이니 일반인은 뒤쪽에 마련된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강의 너른 시야와 광장으로 트여있는 입지조건에서 건물의 전 후면이 따로 없겠지만 아무래도 뒤를 돌아 들어간다는 느낌은 별로 즐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검색대를 통과하고 패찰을 가슴에 단 뒤 들어선 내부의 첫 느낌은 에너지 절약정책 때문이었을까요 어둠이었습니다. 밖의 밝은 대낮과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해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그래도 한가닥 빛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한 층을 올랐을 때 어둠은 가시었지만 동서남북으로 골개 뻗은 복도를 한바퀴 돌아보고난 뒤 그만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로였던 것이지요. 질서정연한 확실성으로도 미로가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때 경험하였습니다. 직선의 복도를 따라 방의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며 걷다보면 어느새 길을 잃게되는 것입니다. 미로는 치밀한 계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미로의 수수께끼는 그 원칙을 풀어내는 것으로 해결되지요. 그러나 계산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미로는 원칙이 없는 만큼 풀이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함에 변화를 더하는 것이 오히려 미궁을 해결하는 방법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가 열리는 메인 로비에 들어서면 과연 나라의 뜻이 결정되는 곳에 걸맞은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음이 보입니다. 바닥과 벽과 기둥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알 수 없는 것은 드높은 천장입니다. 아득하게 올라다 보이는 지붕 속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의 계획에 해당되는 돔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전제주의의 상징적 형태라거나 식민지건축의 전형이라는 형태적인 관점은 덮어두더라도 로툰다홀의 천장을 어둠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맑고 유쾌한 공간이 아니라 무겁고 침울한 공간이었습니다. 짧은 경험이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런 공간은 만나지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둥글게 마무리 지으며 옆으로는 빛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빛으로 가득 차 있지요. 층층이 쌓여있는 어둠의 공간이 할 일 없는 이들의 낮잠과 담배연기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며 의사당이 세워지던 당시의 상황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1975년에 완공되었으니 70년대 초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기록들을 살펴보면 설계공모의 형식에 대한 잡음과 그에 따른 건축계내부의 반목이 눈에 띄입니다. 저작권의 문제, 설계기간의 문제, 진행과정의 비민주적방식 등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명건축가중 일부는 사퇴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명건축가들과 일반 응모건축가로 연합팀을 만들어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리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하여도 내노라하는 건축가들을 함께 작업시키는 것이 나라의 큰일임으로 당연하다는 명분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국회의사당의 설계자는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티칸성당의 벽화작업에 고희 고경, 세잔느가 함께 동원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결과를 상상해보면 되겠지요. 건축가란 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이었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작가의 고뇌를 거치는 막연한 과정보다 회의하듯 설계를 결정하는 것이 편리하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주의 갯수가 정해지고 지붕에 돔이 얹혀졌을 것입니다. 그리되는 과정에서 건축가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르긴 하여도 결정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건축을 행하는 일에 건축의 의지가 작용하지 못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은 단지 기능을 해결하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형식들조차도 덧붙여진 것일 뿐 내용과 의미가 결합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어색한 것이 되고 말지요.

그런 과정으로 태어난 의사당에 이제 손질을 하겠다는 발표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십년이 두세 번 바뀐 만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와지붕이라는 명제가 조건으로 제시된 것은 참으로 난감한 것입니다. 권위의 상징으로 돔을 발상한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적(또는 전통적) 양식으로 기와지붕이 왜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기와지붕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앞서서 건축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돔을 대체할 수 있는 건축의 의견을 달라는 것과 돔을 기와지붕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의사당 전체를 보아 그에 적합한 지붕형식을 창안하는 건축적 의지를 요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지붕 없는 솜씨를 보여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라도 제시되는 제안 중에 기와지붕의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자와는 전혀 다른 발상에서 만들어진 경우일 것입니다. 또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국적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껏 국가적 사업이나 공공의 프로젝트들에서 빠짐없이 시도되었던 것이 전통 또는 전통적인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곳곳에 현대적인 유적들이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전통적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건축계에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생적인 정체성의 구현을 상식적인 감각과 일반적인 논리만으로 막아온 그간의 관행 또한 책임의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근대화의 역사적 과정이 왜곡된 결과로 겪고 있는 정체성의 고민은 비단 건축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알루미늄 창틀에 완자 문양을 끼우고 콘크리트건물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라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서로 다른 문화와 문화가 만나 융합되어 결론을 만들기까지 얼마큼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갖 변수와 다양함으로 이루어진 문화를 단순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투영된 결과물이라 말해집니다. 서양문화사의 시대구분이 건축양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건축과 시대적 상황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건축만이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맺게되었을 때 우리만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시대 이땅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건축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두의 고민입니다. 건축을 문화로 생각하지는 올해의 이슈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성급한 결론보다 모색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표된 내용의 뒷면이 건축에 대한 불신으로 젖어있기 때문이라면 이제 그것을 거두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을 건축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강과 여의도와 의사당이 어울려 이루어낼 미학의 완성이 바꾸려한다는 의사의 결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여유가 이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